

윤 탄핵 선고일 지정에 “헌재, 이제 서민들 일상 돌려줘야”

광주·전남 각계 단체들 “탄핵 인용은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수순”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경기 부양·외교문제·민생 회복에 집중을”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 평범한 일상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빠른 일상회복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경제난에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 경제가 회복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원기(56·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계엄과 탄핵이 시작되면서 넘쳐나던 일감이 줄어들고 이제는 두 손을 놓고 피크 타임에도 쉬고 있다”면서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당달아 늦어졌던 경제 부양정책이 이제는 물살을 타 서민들의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정이근(56·광산구 평동) 씨도 “계엄 이후 환율도 오르고 수출은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재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쉽게 파면이 될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당황스러웠다”며 “늦게라도 선고기일이 확정된 만큼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모든 국민이 계엄 정국을 함께 지켜봤기에 탄핵 인용은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수순”이라면서 “상식과 주권이 회복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헌재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이사는 “헌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계엄과 탄핵 문제가 서민들의 삶, 외교 문제로 번지면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 자체였다”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노동계도 한목소리로 헌재의 파면 결정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4일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탄핵소추안 의결서한 제출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성·장재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첫 출석 (이후 9차 재판의 11차까지 출석)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흥익권진술
3월 8일	윤 대통령 석방
4월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4일	탄핵심판 선고일



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욱 민주노동총광주지부 본부장은 “국민적 공분과 요구 덕에 좌고우면하던 헌재가 결단을 내린 점은 다행”이라면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국민적 분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월 단체도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일제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광주를 짓밟았던 전두환 정권의 폭압을 연상시키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만행은 5월 가치를 훼손시키고 국민을 이분 양단시킨 민주사회의 비극”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비상식적 폭주가 이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고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연 5·18부상자회장은 “헌재가 재판관 일부가 퇴임하는 18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걱정했지만 이제라도 선고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다”면서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내란공범과 주동자를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5·18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4일)를 환영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탄핵 선고일에 헌재 출석 가능성...대국민 메시지 전망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출석에 따른 실익이 없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

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선고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한 차례도 헌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관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 11차례 변론기일중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했고 일부기일에는 불참하기도 했다. 11차례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군 지휘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총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이후 한차례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력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회의원인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죄)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

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고 A씨를 다시 끌어들여 강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촬영됐다. 이 영상에는 장 전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지역 정치권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야당 소속인 지자체장과 시도의회 소속의원들은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 탄핵이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4월 4일 11시,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파면입니다!”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페이스북 게시물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며 “만사저탄이나 환영

한다”고 썼다. 또 “국민의 영원을 받들어 8대 0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미 민심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했다”며 “이제 헌재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파면이 선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소속지역 정치인들도 환영한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심판의 날, 어두운 터널 끝 빛이 보입니다”라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함평군공고 제2025-365호

함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안, 전락원경영함평기사초안)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산49-10번지 일원에 나산강 공공여가장 조성을 위한 함평군관리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

함 평 군 수

1.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최목적: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나. 개최일시 및 장소: 2025. 4. 8(화) 10:00 / 나산면 노인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앞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주요내용: 나산강 공공여가장 조성을 위한 유원지 조성계획(안)

2. 함평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기정	변경		
합계	119,309	-	119,309	100.0	100.0		
관리 지역	소계	46,542	-	119,309	39.0	100.0	
	보전관리지역	26,533	-	26,533	22.2	22.2	
	생태관리지역	20,009	-	20,009	16.8	16.8	
	계획관리지역	-	20,727	72,767	-	61.0	
농림지역	72,767	-	72,767	-	61.0	-	

※ 용도지역 변경은 금회 유원지 변경에 한함.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종류	도로	면적(㎡)	기능	연장(㎡)	기정	변경	총정	사용 형태	주요 결정사항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452	-	소로 1-706 삼축리 산 1347-5	상속인 산 39-3	일반 도로	-	전면도로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신설	2	유원지	나산면 삼축리 산49-10번지 일원	-	20,727	119,309	-	나산강 공공여가장

다.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전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19,309.0	100.0	455.0	455.0	
시설 면적	43,712.0	36.6	455.0	455.0	
유원시설	9,212.0	7.7	-	-	
휴양시설	19,213.0	16.1	272.0	272.0	
특수시설	1,887.0	1.6	-	-	
편의시설	863.0	0.7	-	-	
관리시설	12,537.0	10.5	183.0	183.0	
녹지 및 기타 면적	75,597.0	63.4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관계도서: 계제승락(열람장소 비치)

나.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2025. 4. 1. ~ 2025. 4. 30.

다. 열람장소: 함평군 환경정책실, 나산면사무소

라.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관광정책실☎061-320-2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련인인 공묘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만일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묘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방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가. 분묘 소재지: 전남 목포시 태평동 95-3번지
나. 분묘 가수: 무연묘로 가
2. 개장사항: 사유재산결정권
3. 개장방법: 사유재산결정권
- 부묘분묘는 신고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신고기간 경과 후 관제묘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933-43(삼강주무공원)
나. 안치기간: 안치 후 5년
5. 신고기간: 최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열람처: - 신고 처: 경찰청 ☎ 010-9195-4035
- 열람처: 가계(의무)분묘관리사무소 ☎ 010-5010-863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안에 관여하지 않을 확인하시고 사에는 해당된 분묘지의 관할읍면리(동)로, 제적된 분묘지 기타 입묘사실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시 사업 구내 내에 공사 중 세로의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4월 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함평군 ☎ 010-9195-4035
가계(의무)분묘관리사무소 ☎ 010-5010-8631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갑자(410717-2XXXXXX)
• 최후주사: 광주 서구 월동4길 232, 503호 (쌍촌동, 쌍촌이노텔리)
피상속인 망 김갑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월일 2025년 243호로 신청하여 2025년 3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2일

• 상속인: 김태성(670721-1XXXXXX)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37, 101동 703호(하늘연가아파트)
• 신고기간: 2025. 4. 2. ~ 2025. 6. 12.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태성의 주소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총주주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250,000,000원을 금121,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 총회의 12,900주를 감소하여 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주식회사 신해중합건설
광주 광산구 고봉로125번안길8 (하남동)
사내이사 홍 덕 희

분할합병공고

2025년 4월 1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도시환경이엔지(이하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일동소방(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제게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갑" 주식회사 도시환경이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38번길 20-4(월곡동)
사내이사 공 중 현
"을" 주식회사 일동소방
광주광역시 서구 유목로6번길 34, 3층 (유촌동)
대표이사 박 대 환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파보 편 찬 안 내

밀양박씨일제공파
密陽朴氏落村公后佐郎公逸齋公派譜를 편찬코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수단(2차): 2025. 06. 30까지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지 하오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호연락 참여 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연 락 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70-38
총무이사 박 인 철
(010-3480-0545)
2025. 02. 13.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일제공)총종 회장 박 영 호 (010-3643-1771)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북 구

동 구

남 구

서 구

광산구

• 동 광 266-1920 • 동 북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언 222-8171 • 양 언 571-7658 • 오 치 266-7601 • 동 북 433-1503 • 우 언 433-1503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총 정 222-8171

• 남 부 673-6836 • 북 명 651-1833 • 북 언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 광 천 382-6788 • 상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송 광 603-0311 • 화 정 369-1625

• 윤 남 952-1687 • 월 광 959-1920 • 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지국안내